

# 무안군 운남119지역대, 구급대 발대식 가져

### 고급형 심장충격기 등 61종 207점 최신식 응급전문장비 갖춰 119구급차·전문구급대원들, 골든타임확보 중요한 역할 기대

무안군 운남면(면장 김나연)은 최근 운남 119지역대에서 김산 군수를 비롯한 기관단체장, 의용소방대, 소방가족 등 약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운남119지역대 구급대 발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에 운남119지역대에 배치된 특수 구급차량은 고급형 심장충격기 등 61종 207점의 최신식 응급의료 전문장비를 갖췄으며, 전문 구급 인력이 24시간 3조 1교대로 근무하면서 지역주민 등 응급환자를 이송하게 된다.

응급의료 사각지대인 운남면에 고품질의 119서비스를 제공하는 119구급대가 발대함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전문화된 구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으며, 지역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중추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김나연 운남면장은 “운남면민의 염원이었던 119구급차가 배치돼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구급 서비스 향상으로 군민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무안=이기성기자



### 목포시, 하반기 시민행복 생생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지역맞춤형 일자리 등 30일까지 접수

목포시가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소통 공감 행정을 구현하고, 창의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해 민선8기 정책에 반영하고자 '2022년 하반기 시민행복 생생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

공모 분야는 민선 8기 시장목표 및 방안에 부합하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청년·인구 정책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아이디어 및 미래 첨단산업 육성 정책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타지역과 차별화된 정책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및 지역 인재 육성 정책 ▲조직 문화 혁신 및 생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시민체감형 정책 아이디어 등이다.

목포시정 발전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오는 30일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국민신문고, 목포시 누리집, 우편(목포시 양영로 203, 목포시청 기획예산과)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제안은 실무부서 사전 검토와 제안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등급에 따라 시상금이 지급되는데, 오는 12월 중 시 누리집을 통해 발표된다.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해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 행정을 실현하겠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목포=기동취재본부

## 신안군, 코로나19

### 예방접종 확대 실시

노바백스·스카이코비원

신안군은 올 겨울 코로나19 재유행이 예측되는 가운데 국산1호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원' 접종을 실시한다.

'스카이코비원'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B형 간염 백신, 인유두종바이러스(HPV)백신 등 다양한 백신에 활용되는 유전자재조합 기술을 이용한 플랫폼으로 안정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었다.

신안군은 신안군보건소에서 5일부터 당일 접종을 실시할 예정으로 18세 이상 미접종자 대상 1,2차 기초접종으로 활용되며,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한다.

아울러,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진 '노바백스'가 5일부터 만12세 이상 청소년으로 확대되어 mRNA백신에 대한 이상반응 우려가 있는 사람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신안군 관계자는 “4분기 오미크론변이(BA.1) 기반 27백신이 도입되기 전까지, 이번에도 도입된 스카이코비원을 포함한 총 6종의 백신으로 기초 및 추가접종에 참여하시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신안=이명주기자

## 함평군, '디지털 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공모' 선정

### 전국 2위·국비 6.5억 확보...20여 개소 시스템 구축 예정

함평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디지털 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사업' 공모에 전남남도 최초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함평군은 5일 “디지털 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사업” 공모에 전남남도 최초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평가결과 함평군은 16개 지자체 중 전국 2위로 상위(1~4위) 지자체로 선정되어 6.5억 원의 국비 지원을 받는다.

“디지털 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은 교량, 급경사지, 저수지, 산사태위험지역 등 노후 위험시설의 사고위험 정도를 IoT 센서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사전에

감지하고 위험을 예방하는 시스템이다.

군은 2023년까지 이번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국비 6.5억원을 포함, 총 사업비 13억원을 투입해 지역 내 노후·위험시설 20여 개소를 대상으로 디지털 기반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시설물에 대한 실시간 관측은 물론 계속된 데이터로 통합적인 안전 관리가 가능하며, 위험상황 발생 시 즉각적

으로 대응할 수 있다.

또한 시설물의 노후화 정도에 따라 적기에 보수·보강할 수 있어 지역 안전도 역시 높아질 전망이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최근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를 비롯해 대형화되는 시설물 안전사고로 인해 지역 주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분석과 예측이 가능한 선진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여 안전한 함평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함평=김광춘기자



## 영암군, 지역 청소년들과 목요대화 가져

### 청소년참여기구·학교 밖 청소년·특수학교 재학생 등 15명 참여

영암군이 최근 지역 청소년들과 '목요대화'의 시간을 가졌으며 청소년과 함께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청소년수련관에서 진행된 이번 대화는 '청소년'이 주제로 청소년참여기구, 학교 밖 청소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및 각 고등학교 대표, 관내 특수학교인 소림학교, 은광학교 재학생 등 15명이 대표로 참석한 군민의 일원으로서 군수와의 격의 없는 자연스런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우승희 군수는 청소년을 둔 부모로서 또는 영암군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길 청소년의 동반자로 청소년들이 현재 무엇을 원하는지 대화에 참석한 청소년 한 명 한 명의 목소리를 두루 경청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며 적극적인 대화를 진행하였다.

목요대화에 참석한 영암여고 조\*원 학생은 “평소 군수님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멀리 있고 만날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대



화를 통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학창시절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것 같다”고 참석 소감을 밝혔다.

우승희 군수는 목요대화에 참석한 청소년들에게 감사 인사와 함께 “빛나는 청소년기를 응원하며 어른의 시선이 아닌 청소년들의 눈높이에서 오늘 제안한 여러 가지 의견들은 세심하게 살피서 군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조대호기자

## 영광군 친환경고추 연구회, 선진지 견학 실시

### 고추 소비패턴 변화에 발 맞춰 판매방식 다양화 모색

영광군은 최근 친환경 고추 연구회 25명을 대상으로 영양고추축제 및 입실고추가공공장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다.

이번 선진지 견학은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2022 영양고추 핫 페스티벌'을 벤치마킹하여 지역대표축제인 상사회축제와 연계하여 지역 특산품을 판매하는 방법과 친환경고추의 브랜

드 가치를 높이는 다양화하는 홍보 방법 모색하기 위해 추진하였다.

최상곤 연구회 회장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태양초고추, 굴비, 모시잎송편 등 다양한 특산품도 서울광장에서 도시민들 상대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다.

영광=서희권기자

**아세요?  
한수원이 요즘 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